

## [가정축제 Gift - 인터뷰] “자녀에게 용서의 편지 쓰겠습니다”

진종구, 박명숙(동작A 믿음11순) / 2003 / 페이지 수: 1

처음 순장을 하는데 이런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셨던 진종구, 박명숙 부부.

특별한 갈등 없이 앙꼬부부로 지내온 그들에게 이번 가정사역축제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동안 서로 물어두고 있던 작은 갈등마저도 주님께서는 꺼내어 화해하게 하셨다며 박명숙씨는 눈가를 적시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자녀는 내가 아니라는 이기복교수의 말을 듣고 라면이 뜨거운데 불기 전에 먹으라고 아들을 채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요한이는 당신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던 일을 꺼내며 자신과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한다. 이번 축제는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자녀들에게 꼭 용서의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꺼안은 채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는 찬양과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가정사역자로 부부를 사용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진종구씨.

“온누리 Acts29를 쓰는데 내가 가정 기초가 되는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저희 순은 30개 분순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붓는 순, 기도하는 순, 안디옥교회의 순이 되자고 기도합니다. 순원들의 가정이 완전히 회복하고 순장으로 세워지고, 또 분순되고, 다시 30개 순으로 분순되는 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라며 이번 가정사역 축제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 가정과 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거라고 다짐했다.

\* 출처 : 온누리신문